

회원사 동정

데이콤

데이콤, 유통VAN서비스 강화

데이콤이 오는 3월 1일부터 유통VAN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데이콤은 그동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간 단순 수·발주, 대금신청 및 지불등의 업무를 전자문서교환으로 처리하던 유통VAN서비스의 내용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아래 오는 3월 1일부터 롯데쇼핑, 건영유통 등 데이콤의 유통VAN에 가입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의 자료제공을 받아 점별, 특정 상품별로 일간·주간·월간·분기별 판매실적 및 판매량, 판매금액등을 유통VAN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또 5월부터는 전 유통업체의 자료를 공동데이터베이스화해 업체별, 상품별 판매정보는 물론 특정상품의 요일별, 월별, 계절별 판매추이의와 주간, 월간, 연간으로 가장 많이 팔린 상품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공동판매정보"도 서비스

할 계획이다.

한편 데이콤 유통VAN서비스는 지난해 9월 가동한 이래 현재 롯데쇼핑, 미도파, 신세계, 빙그레, 해태유통, 한양유통, 농심 등 19개 유통업체와 동원산업, 동서식품, 오투기산업, 제일제당, 태평양등 1백여개 제조업체가 가입, 제품주문에서 생산에서 납품, 유통까지의 거래정보 및 대금청구, 펌핑킹, 국내외의 신상품정보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일본-한국 해저광케이블, 2월 개통

- 800억원 투입, 총 연장 1,680Km건설
 - 한국통신 3,690회선, 데이콤 1,080회선
- 각각 회선 확보

러시아 - 일본 - 한국을 연결하는 총연장 1,680Km 길이의 해저광케이블이 개통되었다. 이번에 개통된 해저광케이블은 지난 90년에 개통된 홍콩 - 일본 - 한국에 이어 두번째로 개

통되는 해저광케이블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통신과 데이콤을 비롯, 미국 AT&T社와 MCI(MCI International), 일본 KDD, IDC, ITJ, 캐나다 TELEGLOBE 등 전세계 14개국 21개 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 건설했다.

지난 '93년에 개통된 해저광케이블은 우리나라 부산과 일본 나오에쯔, 러시아 연해주 나홋카를 연결하는 총연장 1,680Km의 케이블로 독도 북쪽 10Km 지점을 분기점으로 해 韓 - 日간, 韓-러간 등 각 구간에 각각 560Mbps급 시스템이 설치돼 모두 15,120회선의 용량을 갖는다.

데이콤은 이중 한-일 구간 750회선과 한-러 구간 330회선 등 모두 1,080회선을 확보해 미국, 일본, 홍콩을 연결하는 해저 광케이블 회선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호주 및 러시아를 해저 광케이블로 직접 연결해 국제전화와 국제전용 회선 등 앞으로 보다 질 높은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나우콤

장애극복을 위한 시험용 포트(02-704-1440)를 운영

나우콤은 접속장애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원효전화국에 시험용 포트(접속번호 02-704-1440, 14400bps)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28,800BPS 전용접속번호 02-592-5100을 9600BPS이상이면 접속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그동안 나우콤은 이용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접속장애에 대한 일부 이용자의 불편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적지 않았다. 접속이 불안

정한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으나 가장 큰 요인은 회선 품질의 지역간 편차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02-592-5000~2번으로 반포전화국을 통해 접속하면 반포전화국과 회선상태가 맞지 않는 지역의 이용자들이 접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원효전화국에 시험용 포트를 개설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원인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과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또 접속의 불안정은 회선간의 문제 이외에도 모뎀간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나우콤은 현재 28,800bps지원 포트로 사용하고 있는 02-592-5100번을 9,600bps 이상의 모뎀이면 모두 접속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나우콤의 모든 접속번호가 자네트에서 제조한 모뎀을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02-592-5100번만은 C&C社의 모뎀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모뎀간의 차이에서 오는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두가지 시도를 통해 서비스의 불안정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보제공이 소중한 도움이 될 것이다. 나우콤은 이번 시도를 계기로 파악된 원인과 대책을 지방접속망에도 적용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쾌적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것이다.

LG정보통신

종합판매시점 정보관리(POS)시스템인 486급 PC-POS단말을 개발

LG정보통신(대표 정장호)은 국내 모든 호스트컴퓨터기종과 호환가능한 종합판매시점 정보관리(POS)시스템인 486급 PC-POS단말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LG정보통신이 지난 1년간 10억여원을 들여 개발, 이번에 발표한 POS단말(모델명 MagicPOS)에는 또 직불카드가 상용화 될 것에 대비, 선불·직불카드를 읽을 수 있는 IC 카드리더기를 내장했고 롤프린터와 RJ프린터를 동시에 장착했다.

순간 정전에 대비해 백업용 전지를 내장, 데이터 및 프로그램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도 특징이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유닉스 등 다양한 운영체계를 사용할 수 있어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 주변기기와의 접속도 상대적으로 타 제품에 비해 용이하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POS단말은 개방형 구조로 이루어져 사용자 요구에 따른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용이하며 기존에 개발된 응용프로그램과의 호환성도 높다. 한편 LG정보통신은 이 제품을 직판과 OEM방식으로 공급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POS업체들과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 디지털 이동전화상용 시스템 개발

LG정보통신의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 디지털 이동전화 상용 시스템 개발은 우리나라가 무선통신산업 3류국에서 1등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쾌거로 기록될 만하다.

특히 CDMA 방식의 디지털 이동전화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처음 상용화가 시도되는 첨단기술을 응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TDX(국산 전전자교환기)개발에 버금가는 국내 정보통신업체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LG정보통신은 이번 CDMA 상용시험 통과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

망된다.

개인휴대통신(PCS)서비스 장비공동개발업체로 선정

LG정보통신(대표 정장호)은 오는 98년부터 서비스될 예정인 한국통신의 개인휴대통신(PCS)서비스 장비공동개발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개인휴대통신은 각 개인별로 번호를 부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통화할 수 있으며 디지털방식을 채택, 통화품질이 깨끗하고 혼신이나 끊어짐이 거의 없는 차세대 이동전화서비스다. 이번 입찰에서는 대우통신도 공동개발업체로 함께 선정됐다.

산업기술정보원

산업기술정보원이 제공하는 기술관련정보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산업기술정보원에 따르면 기업 연구소 등에 각종 산업기술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KINITI-IR(산업 기술 정보서비스망)가입자는 지난 한해동안 38% 증가한 2천2백75개 기관으로 늘어났고 정보 이용회원은 1만2백86명으로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이용자가 이처럼 크게 늘어나면서 정보이용건수도 93년 47만5천건에서 지난해에는 54만4천건으로 7만건이나 증가했다. 정보이용자들 가운데는 기업이 67.7%로 가장 많고 연구소 16.1%, 대학교수 6.5% 등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화학 및 화공분야 17.2%, 기계·금속 16.2%, 전자 8.4%, 생명과학 5% 등의 분포를 보였고 환경·자원·건설분야도 최근 이용건수가 큰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KC**